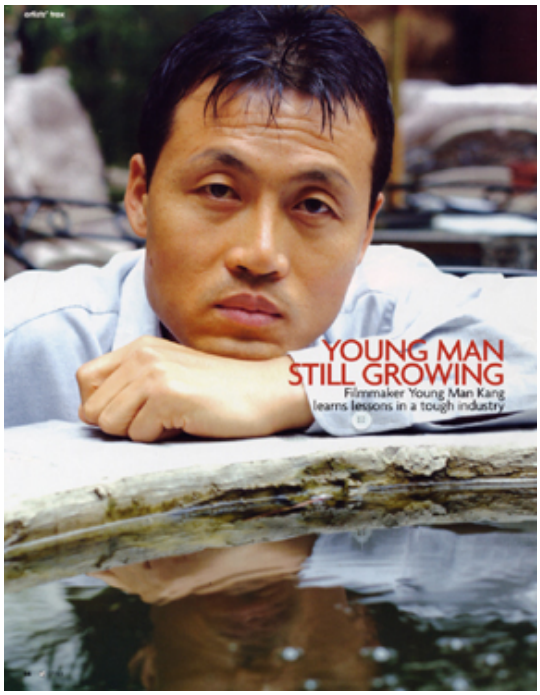
까막눈 프로젝트 2005, 02

영화 감독 강영만



헐리웃의 한국인 독립영화 감독 강영만

혼자의 힘으로 미국 할리우드에 데뷔한 강영만 감독. 독립 영화를 찍는 그는 열정과 아이디어를 작품에 쏟는다. 그의 영화 '큐피드의 실수(Cupid ′ s Mistake)' 는 제작비 980달러로 최저 예산 영화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는 배우 오디션과 영화 촬영, 투자 유치 등을 모두 혼자 해내고 있다. [동아일보]

꿈꾸는 헐리웃키드 강영만 감독

충청도 산골 출신 강영만은 대학졸업 이듬해인 1994년 영화감독의꿈을 안고 무작정 미국으로 갔다. 영화전문학교를 나와 TV광고 감독, 영화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활동하며영화제작을 준비한 그는 2000년 첫 작품 '큐피드의 실수' 로 주목을 받았고, 2002년 '퍼스트 테스트먼' '헤이티 노예 어린이들' 로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미국 독립영화계에 이름을 알렸다.사무실도 없고, 감독과 프로듀서를 겸업하면서 배우 오디션, 투자사 방문, 장소 협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저예산 독립영화 감독의 길은 험난하다. 하지만 그는 영화 그 자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안고 오늘도 현장을누빈다. [한국일보]

포기가 없다면 실패도 없다

열악한 환경과 사람들의 배신으로 그는 실망하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자신의 꿈인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에겐 포기도, 실패도 없다. 다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으로 영화를 완성해 간다. [KBS 한민족 리포트]

까막눈 프로젝트 1탄 :

헐리웃의 한국인 독립영화의 핵, 강영만 감독 오밤중 난감 인터뷰

현재 헐리웃에서 한국인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중이신 강영만 감독님을 오밤중에 뜬금없이 인터뷰 해 보앗습니다. 난대 없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강영만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떨결에 인터뷰에 진지하게 응해주신 강영만 감독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LA 현지에서 촬영과 인터뷰, 진행, 편집, 섭외까지 모두 담당하시느라 재주 부려주신 훈71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칭 '까막눈 프로젝트'의 첫 동영상을 동반한 인터뷰 '헐리웃의 한국인 독립영화의 핵 강영만 감독 오밤중 난감 인터뷰' 는 이것으로 마치며, 후속편을 준비해 올리도록 할테니 2% 기대해 주세요.

HOON 71 짐싸들고 미국 건너간지 8년여만에 학업을 마치고 현재 LA의 모방송국에서 카메라맨과 영상편집등을 겸업중인 LA Confidential AV Man. 많은 동영상어플을 다루는 실력으로 적잖은 영화감독들과 자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중이라고 전해지나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남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애쓰지는 않는다. 성탄절등 특별한 날의 이벤트동영상은 익히 많은 MAC유저들에게 잘알려져 있다.

▶ NEXT